

“시장서 보낸 30년 청춘과 꿈 담았어요”

달력 전시회 여는 남구 무등시장 상인들

광주시 남구 무등시장 상인 50여 명이 시장에서 보내온 청춘, 시장에서 꿈꿔왔던 미래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다.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남구 문예회관에서 문을 연 ‘나의 청춘, 나의 꿈’ 전시회, 교육문화공동체 결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 상인들은 꿈계는 3년 갈계는 30년 넘게 시장 바다에서 누군가에겐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터득한 삶의 지혜와, 가난했지만 정

이 넘치는 추억들이 블라주 액자와 새해 달력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상인들이 엮어낸 신묘년 달력을 가족만 큼이나 소중하게 간직해온 장사 밀천들이 1월부터 12월의 주인공으로 나서 손님들을 맞는다. 김선원씨가 20여 년간 행운의 부적으로 고이 간직해 오던 ‘쇠고기 뚜레’, 박성자씨가 30여 년간 사용해온 ‘떡고물 체’, 임승우씨의 사별한 아내가 남긴 고객과 거래처 ‘전화번호부’, 박수경씨가 19살 때부터 사용해온 ‘양

장도구’, 이재천씨의 ‘나무의자’, 정찬주씨가 전 주인에게 물려받아 사용해온 50여 년 된 ‘손저울’ 등에서 힘겨웠지만 씩씩하게 살아온 삶의 향취가 물씬 풍겨온다. 이금례씨의 ‘모기향’, 윤애자씨의 ‘뜰재’, 박영숙씨의 ‘체’, 송점숙씨의 ‘커피용품’, 김옥순씨의 ‘앞치마’, 이향남씨의 ‘바가지’ 등은 상인들이 결코 버릴 수 없는 목숨 같은 물건들이다.

블라주 작품들에선 상인들의 소박한 꿈들이 되살아났다. 하연이씨의 ‘부부에서 가족으로’, 김공남씨의 ‘우리 가족의 명화여행’, 박영호씨의 ‘명화에 집을 짓다’, 안애자씨의 ‘나와 과일, 그리고 가족’, 유순월씨의 ‘가족

판타지’, 윤애자씨의 ‘부부가 지켜야 할 12가지’, 이금례씨의 ‘그림으로 세계일주’, 최정인씨의 ‘꽃에서 가족을 보다’ 등 8명의 상인이 8가지 주제로 이제껏 수줍어서 표현해보지 못한 꿈을 노래했다.

작품 속에서 상인들은 30여 년 동안 무등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들과 한 번도 못본 가족여행을 떠나고, 과일 속에 가족들의 얼굴을 파묻기도 했다.

32년 동안 무등시장에서 건어물가게를 운영했던 하연이(여·62)씨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장통 속에 묻어뒀던 앨범을 꺼내놓고 바쁘게만 사느라 되돌아보지 못했던 즐겁고



도 슬픈, 또한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되새기 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민족해했다.

상추튀김 가게를 운영하는 박영호(62)씨는 “동료 상인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

기가 됐다. 무등시장 상인들은 모두 가족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463-106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제20대 노조 공식 출범



광주일보 제20대 노조가 14일 오후 광주시 동구 무등빌딩 14층 본사 편집국에서 공식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 박현규 부사장, 흥행기 신임 위원장, 임문택 신임 부위원장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흥 위원장은 “호남 제일의 신문인 광주일보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조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은 물론 사족과도 꾸준히 대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흥 위원장은 사회부·편집부·경제부 기자를 겨냥 정치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의 불씨’ 된 영어대회 우승 상금

승의중, 난치병 학우돕기 모금운동 벌여 430만원 전달

승의중학교 학생, 교직원, 졸업생 등이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우를 도우려고 사랑의 성금 모금 운동을 벌였다.

14일 승의중학교(교장 김해숙)에 따르면 14일 골육종(암)과 급성림프 모구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성모(17·1학년)·윤모(19·3학년)군의 치료를 돋기 위해 각각 성금 212만6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모금 운동은 지난달 21일 광주광역시 주최 ‘제1회 전국 청소년 영어 토론회’ 중등부에서 1등을 차

지한 염희원(19·3학년)양과 서진영·정우휘(18·2학년)군이 받은 상금 200만 원을 불우이웃을 돋는데 쓰겠다고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 교직원과 종교부, 2010학년도 14일 골육종(암)과 급성림프 모구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성모(17·1학년)·윤모(19·3학년)군의 치료를 돋기 위해 각각 성금 212만6000원을 전달했다.

성군은 지난 6월 골육종(암) 진단을 받고 서울원자력병원에서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매일



공부를 하고 있으며, 윤군은 지난달 15일 전남대 화순병원 암치료센터에서 투병생활을 하면서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금을 전달받은 윤군의 어머니는 “성금을 모아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아이들이 빨리 완치되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

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김해숙 교장은 “두 학생의 헌유를 빌미, 투병중에도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은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모금 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임성철 교수 美 ABI ‘올해의 인물’ 등재



임성철 조선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최근 미국 인명정보기관인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서 발행하는 ‘21세기 위대한 지성’ 54판 및 ‘올해의 인물’에 등재됐다.

임 교수는 조선대를 거쳐 충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텍사스대학 방문 교수로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유방병리학 및 세포병리학을 연수했다. /체희증기자 chae@

우리 자산 전남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녹색땅의 보물지도’ 선우진씨 대상



도내 곳곳의 관광지를 여행하는 뮤직 비디오 형식으로 재작과 남도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영상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아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우수상은 김경수(35·광주시 북구 매곡동)씨의 ‘다시보는 답사여행 해남 고인돌’, 송한모(52·광양시 중동)씨의 ‘순천만 갯벌 물들의 하루’, 신찬호(48·순천시 연항동)씨의 ‘녹색의 땅 전라남도’ 등 3편이 뽑혀 각 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장려상에는 박준영(24·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씨의 ‘전남, 주의를 캐스팅하다’ 등 6편의 작품이 선정돼 각 50만원, 입선 10편에 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품은 전남도 인터넷방송 (<http://www.jntv.go.kr>)과 다음, 네이버,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영상으로 활용된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선우진씨의 ‘녹색

땅의 보물지도’는 보물지도를 보듯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섬 주민 건강 증진에 써달라”

전남도약사회 의약품·위문품 기탁



전남도약사회는 14일 전남도청을 방문,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주민 건강 증진에 써달라며 의약품과 위문품 등을 기탁했다. 약사회가 기탁한 의약품은 2100만원 상당의 영양제, 비타민, 파스류 등 57종과 겨울내의 700벌(2100만원 상당)이다.

전남도는 기증받은 의약품의 경우 전남병원선을 통해 무의도서 순회진

료 때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투여하는 한편, 겨울내의는 연말 12개 노인요양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남도약사회는 지난 2007년부터 섬지역 주민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의약품과 성금을 모금해 왔으며 지난 4년간 9800만원에 달하는 의약품과 2100여벌의 겨울내의를 섬 주민을 위해 기탁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인사

◆(주)대유에이티
▲총괄사장 정진모 ▲사장 박용길 ▲부사장 우문식 ▲전무 장명석 ▲이사 박상민 ▲이사대우 김진규·양찬유

내방

▲박재현(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안재오(광주시체육회 훈련계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민복기씨 장남 윤웅록군 정영남·김재심씨 차녀 신숙양=18일(토) 교직원 공제회관 3층 예식홀.

▲오덕환·권순연씨 장남 홍진군 이인재(YTN 광주지국장)·김은선(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씨 장녀 혜미양=18일(토)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 천주교 논현2동 성당.

▲김진복·김정남씨 장남 창기(경찰대 졸·응선경찰서 근무)군 김태우(전 광주케이블TV 사장)·임정진씨 장녀 혜지(고려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양=19일(일) 낮 12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메리츠타워(아모리스홀)

▲동신고 17회 동창회(회장 정재

▲광주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일수)=15일(수) 오후 6시 30분 신양파크호텔 6층 중식당. 062-511-1946.

▲목포홍일고 재광 북구모임(회장 박재중) 송년회=17일(금) 오후 7시 30분 텔보네갈비(문해지구 샛터코아전녀원) 010-3642-0234.

▲목포중·목포고 재광 동창회(회장 양동식·고 15회) 송년의 밤=17일(금)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능성동 메리어트 웨딩홀. 062-222-0030.

▲해남 현산중학교 22회 은사님 초청의 밤 행사=18일(토) 오후 6시 장소는 문의자 개별 통보. 010-5395-7444.

▲정광중 31회·고 29회 동창회(회장 구만복) 송년의 밤=18일(토) 오후 6시 하남 산정동 가족회관. 010-8833-7425.

▲문화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

▲정기총회 및 송년회=18일(토) 오후 6시 광산구 무역회관 웨딩홀. 010-4604-2958.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268-5588, 010-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0-369-3323.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읍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독서치료사-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사·학생=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수교육, 스킨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횡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구선·시계·베개·주차증·방석·액자·지갑·핸드폰 줄 세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사회인 아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

609-9943, 010-2611-7787.
▲맘보ют엔터 살사동호회 회원=충장로 3가 충파 앞 더비다샵 지하, 라틴댄스·살사 등. 010-5136-0028.

▲인총근·임봉근 님(남/56세)
未亡人: 정성희
子: 임태경 女: 임해진
• 출생400호 • 생년: 1940년 12월 15일 • 장지: 나주 송조관

故 오영춘 님(남/75세)
子/女: 오병천·이진아, 벽록·이세영
• 출생400호 • 생년: 1935년 1